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 선언…“모든 질책 겸허히 수용”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이자 도리”…비난 여론 속 ‘소년범 취지’ 지적도

배우 조진웅(49)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21년 간의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 ‘독전’ 등에서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하면서 흥보도 장군 유해 봉황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올해 제3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년범 논란은 그가 배우로서 쌓아온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와 괴리가 큰 내용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조진웅은 2001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공식 데뷔했다.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드라마 ‘솔악국집 아들들’(2009) 등으로 대중에 점차 얼굴을 알린 그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

들 전성시대’(2012)와 천만 영화 ‘명량’(2014)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인지도를 키웠다.

조진웅은 특히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도맡으며 현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그 시작은 신념이 강하고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으로 등장한 2016년 화제작 tvN 드라마 ‘시그널’이었다.

종영 이후 후속작 요청이 끊이지 않던 ‘시그널’은 내년 상반기 10년 만의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조진웅의 과거 논란으로 방영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드라마 ‘시그널’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방송 중인 4부작 다큐멘터리로, 조진웅의 은퇴 선언 직후 SBS는

조진웅은 해설자를 교체하고 이미 방송된 분량도 수정을 진행 중이다.

과 ‘독전’(2018)과 ‘독전 2’(2019), ‘경관의 피’(2022)에

이 이력은 2021년 그가 독립운동가 흥

서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국민특

형사로 등장했고, ‘블랙

당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파묘식

부터 대한민국 대전현충원의 유해 봉환

식까지 전 과정에 동행했다.

당시 KBS 1TV는 이 모든 과정을 담

은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흥보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방송했지만,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로 전환됐다.

조진웅은 국민특사 활동 이후 흥보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션도 맡았다. 그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돋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 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19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일에 대한 맛고 끓음이 확실해야 한다.
36년생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48년생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60년생 규칙적인 운동을 뒀지 말고 열심히 하면 일도 잘 풀린다. 72년생 뜻밖의 상대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긴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 미움을 품어야겠다. 84년생 다소 매정해 보일지 모르나 일은 일대로 인간관계로 인해 처리해야 한다. 96년생 바쁜 것이 원인이 되어 멀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소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37년생 덕으로 이기는 사람은 흥하고 힘으로 이기는 사람은 망한다. 49년생 따사로운 기운과 부드러운 여유가 함께 하는 날이다. 61년생 용기를 가져라. 우선 상대의 제안을 고려하라. 73년생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85년생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오던 것 주위에서 알게 되고 인정해줄 것이다. 97년생 자신의 주장을 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09년생 즉흥적인 것은 위험하다.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호랑이띠: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38년생 신경과 민으로 커디션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 50년생 남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면 승산이 있다. 62년생 새로운 인생의 철학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 74년생 정에 의존하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88년생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 금전문화 회복된다. 98년생 지갑은 암어지지지만, 꼭 필요한 일에 쓰여야 되니 즐겁다. 10년생 생각 이상으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끼띠: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학격한 것 같은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39년생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상대가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3년생 잘 참아준 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75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기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다. 87년생 어려운 일도 너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니 해나갈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라. 99년생 먼저 고개를 숙여서 어려모로 편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11년생 기본에서 생각하면서 원하는 원기로 돌아온 들파구가 마련된다.
Dragon: 용띠:
40년생 현재 상황에 만족할 만하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낸다면 문제다. 52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만, 잘 해결될 것이다. 64년생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을 고쳐야 한다. 76년생 가족의 건강을 미리미리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88년생 지인들과의 지출이 늘어나지마, 나가는 것 만큼 들어온다. 100년생 무리하게 자신을 억제하면 건강이 나빠지므로 주의할 것. 12년생 출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오늘은 마리회전이 잘된다.
뱀띠: 어설플게 어울쩍 넘어가거나 서로 더 불편하게 된다.
41년생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불안하다면 잠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53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면 보답을 받는다. 65년생 건강은 낫는 듯하다가 오히려에는 더 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 77년생 꼼꼼히 살피고 청서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불행을 막을 수 있다. 89년생 상대편 처지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모두가 좋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100년생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힘들고 견뎌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띠: 버驺을 청으니 이제는 더 크게 울리길 원만남았다.
42년생 모처럼 좋은 기회다 했는데 뒤늦어도 안 될 수 있다. 54년생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둘 사이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더 시끄러워질 뿐이다. 78년생 지인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쉽게 말하기 힘든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坦率하게 상담해보자. 90년생 실연의 고통을 달랠 수 있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난다. 02년생 남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양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니 소신을 가지고 대범하게 행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라.
43년생 뜻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 기쁨을 인정해주는 운세다. 55년생 다시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67년생 직 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참견하거나 나서지 마라. 79년생 할 말을 다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이다. 막상 그렇지는 않다. 91년생 어느덧 지쳐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겨라. 03년생 아무리 보기 기쁜 사람도 아쉬운 때는 생각이 나기 마련이니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 마라.
원숭이띠: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익이다.
44년생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56년생 한 가지를 정하면 중도에 변경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68년생 자신의 인생에 불나방처럼 꽂이 활짝 피고 화창한 날씨가 된다. 80년생 삶의 주제가 바로 자신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92년생 빠른 일상에 지쳐 있으니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쉬어야. 04년생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좋다.
닭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큰 일의 시초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45년생 사람 나고 냄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57년생 당장 헛宝贵的 기회를 놓아버리면 후회된다. 69년생 냉정하게 상황을 보아라. 욕심이 앞서면 시야가 허물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 81년생 뜻 맞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함께 진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93년생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풀어놓는 단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품위가 올라간다. 104년생 헌가나 나도 찾는 것이 삼책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황금색
개띠: 형상 말 조심을 하자. 대회 중에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46년생 괜히 속상해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릴 수 있다. 58년생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은 부딪쳐보아야 한다.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이다. 70년생 가족간의 소통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82년생 드디어 겉으로 들어들이게 된다. 뿌리만큼 풍성한 수확이 들어올 것이다. 94년생 마음부터 달려나가면 실수하게 된다. 06년생 필요없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헤어보내라.
豕띠: 순간 판단력도 좋아지니 추진하는 일에 막힘이 없겠다. 다만 무모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35년생 걸로 뒤집어진 한 번의 행동으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47년생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말들만 오고 갈 수 있다. 아예 말을 끊거나 마라. 59년생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밝은 얼굴을 유지하라. 긍정적인 생각이 상황을 호전시킨다. 83년생 너무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춰 본분을 지킨다면 무난할 것이다. 95년생 약간의 변화를 준 것 이도움이 된다. 어두웠던 마음이 오늘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제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진다.

tbn 차자기(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출음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름함을 타파하는 시간!
흥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남도매거진(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살하지라~

달리는 라디오(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용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KCTV 특집 (지방소멸과 AI, 데이터를 확보하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AI·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공공공의 디자인 선정자. AI 시대 속 외포되고 일허지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학습데이터 구축의 부실 현장과 중요성에 대해 조명한다.
방송 : 12월 10일(수)~12일(금) 21:00~21:50

네트워크 밤송 서울금강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협의의 맛과 맛의 현장.
이번 흥은 광주 동공의 개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들의 우아한 계정을 찾거나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방송 : 12월 9일(화)~12월 12일(금) 20:20~20:50

SO 네트워크 VJ 시대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방송은 인정해와 떠나는 지역의 케이블방송사 공동제작자 ‘찌’ 현지 탐방프로그램. 국가 정밀로, 생태도시로 ‘뜨고 있는 도시’ 순찰을 찾기 간다.
방송 : 12월 11일(목)~12일(금) 13:00~13:50